

# 전남도, 우수 식품업체 수주량 확보 온힘

## 김치·건강기능식품 등 생산 도내 53개 기업 집중 홍보

전남도가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유통업체의 식품 위탁생산(OEM)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도내 식품업체 가동률이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식품산업연구센터에 식품제조-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알선 창구를 설치해 신제품 개발 및 위탁생산을 희망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등이 도내 우수 식품제조업체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식품산업연구센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생산 능력, 수탁생산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식품제조업체를 선정·관리한다. 현재 흑염소 전액, 석류 콜라겐, 추어탕, 김치 등 일반 식품을 위탁 생산하는 도내 39개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또 다이어트, 간기능, 혈행, 인지기능 개선 등 소비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MP) 인증 전문업체 14 곳을 발굴했다.

이 업체에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남도는 남도장터 입점과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홈쇼핑 등 유통활성화와 시제품 생산, 디자인 개발 등 사업 지원을 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에는 우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여대의 매출을 올리는 우수 업체들이 있다.

나주 농업회사법인 새물향방제당은 경기도에 있는 '행복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이경제 흑염소 전액' 상품을 위탁 생산, 지난해 생산시설을 100% 가

동하는 등 연간 9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황칠 등 전남 우수 원료 건강식품 개발과 위탁생산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나주 김치전문 생산업체 삼진지에프는 48년간 운영경력과 배추 속파기 로봇 등 최첨단 생산비 절감 설비를 구축했다. 자체 상품인 '왕 김치', '수라상 김치'와 동원F&B, 삼양식품, 샘표식품 등 대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연간 4500t을 생산, 1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설비 가동률은 80%에 달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내 식품업체의 수주물량이 늘어나면 매출액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자본 역외유출 차단,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농산물과 남도만의 독특한 천연자원이 풍부해 원료 수급이 쉽고 깨끗한 위생시설까지 갖춘 전남의 식품제조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선인의 흔적과 멋' 기증유물로 느껴보세요

### 전남농업박물관 '삶의 풍경 속에 스며들다' 특별전

전남도농업박물관이 기증 유물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삶의 풍경 속에 스며들다'란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사진>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10명이 기준 유물 123점을 선보인다. 전시 구성은 ▲삶 속에 깃든 제례문화 ▲시간의 풍경 속으로 등 총 2부로 꾸몄다.

1부에선 가제도구와 제례 용품을 중심으로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조상에 극진한 예를 다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자적 제례 문화를 형성하고 실생활에서도 독자적인 의식주 문화를 꽃핀 선조들의 생활을 조명했다.

신주, 촛대, 향합, 술잔, 제상 등 각종 제례 용품은 조형미가 아름다우며, 가제도구 중 옷장, 뒤주, 받달이, 돈궐, 병풍 등은 자연미가 뛰어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2부에선 과거에는 자주 사용됐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거나 그

모가 사라져가는 유물과 다양한 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일상 풍경을 알 수 있는 옛 생활 문서, 족보 등 기록물 아카이빙과 호롱, 순찰시계, 도정기구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 초점을 맞춘 유물로 구성했다.

이 외에 함께 전시되는 분청사기, 수묵화 그림 등은 담백한 자연미와 고아한 품격이 잘 들어 있다.

임영호 관장은 "오래된 것과 새 것, 느낌과 빠름, 소박함과 화려함, 이 모든 것이 공존하며 서로 조화를 이룬 삶의 풍경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기증 유물의 소중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여유를 잃지 않은 선인의 흔적과 멋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전남도, 29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

신청은 29일까지 4주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을 통해 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된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생활비 등의 학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4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전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현재 대학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이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접수, 대상자 확정, 이자 지원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개인 지급 없이 대출이자를 자동 상환할 예정이다.

윤재광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장기화한 경제침체 속에서 이자지원 사업이 도민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도에서는 대학생 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민 명예기자 역량강화 워크숍' 최근 진도에서 열린 전남도 도민명예기자 역량강화워크숍에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도정홍보에 기여한 도민명예기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원예산업 발전 청사진 그린다

### 5개년 계획 수립...시·군별 전문 품목, 생산조직 집중 육성 초점

전남도가 최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 원예생산부서와 유통부서, 생산조직(통합마케팅 조직, 조합공동법인, 연합사업단) 등 100명을 대상으로 제3차 원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계획 수립의 첫발을 뒀다.

제3차 원예산업종합계획은 정부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반영해 지금까지 별도로 수립·추진한 과수 산업발전계획을 통합할 방침이다. 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은 ▲생산-유통 조직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 ▲해당 조직의 사업계획에 대한 자율성·책임성 강화 ▲보조사업을 일괄 신청·지원하는 패키지 지원방식 등이다.

정부의 원예산업 정책 방향에 맞춰 수립되며, 지

역별 전문 생산품목과 생산조직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수립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8월 중 중간 점검하고, 수정·보완 후 오는 10월 도 계획과 함께 확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국 단위 물류체계, 온라인 거래 등 시장 지배력 증가를 위해선 산지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농촌 인력 부족과 생산비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 등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 보성서 워크숍 ...변화하는 복지정책 능동적 대처 강조

전남도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까지 이틀간 보성다비치콘도에서 '2022년 전남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에선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었던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이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란 주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기획 기술과 문제분석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또 김종원 소셜프라이즈 대표는 '구글 스마트워크'란 주제로 스마트시대에 모바일과 컴퓨터 등

온라인상에서의 업무 추진 필요성과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워크숍에서는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전에 애쓰는 종사자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 전남 협회에서도 종사자 1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성규 전남도장애인복지관장은 "앞으로도 전남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사자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내 총 18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장애인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장애인 가족 서비스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지원, 장애인 직업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손해보험협회

#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